



보도

2024.9.3.(화) 14:00

배포

2024.9.3.(화)

담당부서	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김태욱	(02-3145-7065)
	은행검사2국 경영실태평가팀	책임자	국 장	한 구	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	이진아	(02-3145-7210)
	은행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김시일	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김상현	(02-3145-8330)

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

1. 회의 개요

- '24.9.3.(화), 금감원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,
 -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요

- ☑ 일 시 : '24.9.3.(화) 14:00 ~ 15:00
- ☑ 장 소 :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
- ☑ 참석자 : (금감원) 박충현 부원장보(주재), 은행검사1국장,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 (은행권) 11개 은행* 여신 담당 부행장, 은행연합회 본부장
 - *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SC, iM, 농협, 기업, 수협, 부산, 광주

2. 박충현 부원장보 발언 요지

-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·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
 -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·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,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.
- 이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, 최근 ①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②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을 언급하였습니다.

<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>

- ① **(금융사고 양태 변화)**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·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*

*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지난 5년('19~'23)간 1건(150억원)에 불과하였으나, '24년(1~8월) 중 7건(987억원)으로 급증 (※ '24년 금액은 최초보고 기준)

- ② **(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)** 점포·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으며,
- 영업점장 전결여신 대상의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되는 등 영업점 여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
 -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

□ 이에,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,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.

- 주요 개선과제로 ①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, ②담보 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, ③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*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언급하였습니다.

* 최근에 상가담보대출 관련해서 허위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여신을 부당하게 과다 취급한 사고 多

□ 아울러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,

-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- 다만,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·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
 -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,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3. T/F 운영 방안 및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제(안)

가. TF 운영 방안

- 금일 킥오프 회의 이후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은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
<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운영방안>

- **(개요)** 최근 일련의 사고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제*에 대해 은행권 의견 수렴 및 은행연합회 모범규준** 개정안 마련
 - * ①여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, ②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절차 개선, ③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 등
 - ** 금융사고 예방지침,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
- **(실무작업반 일정)** 부원장보 주재 킥오프 회의 후, 실무작업반 회의 진행
 - **(구성)** 은행검사1국장(반장), 은행검사1·2·3국 실무자, 기관별 실무자 등
 - **(일정)** 9~10월 중 실무논의 진행, 개정안 마련 → 연내 모범규준 개정
- **(운영방안)** ①금감원 발제 → ②은행권 논의 및 개선방안 구체화 → ③최종 개정(안) 마련·확정 방식으로 진행

나.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제(안) ※TF 논의를 거쳐 세부과제는 수정·보완 가능

1.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

- **(사고사례)** 고객제출 증빙서류가 스캔보관(원본폐기)되는 점을 악용하여 여신취급 직원이 동 서류를 위변조하여, 여신심사에 활용한 사례
- **(개선방안)** 소득·채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의 규정화¹⁾, 중요서류의 진위확인 강화²⁾(예: 부동산담보대출시 임대차, 매매·분양계약서) 등

- 1) 공공마이데이터로 접근가능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토록 하고, 확보 불가시 '고객제출 공문서' → '고객제출 사문서' 順으로 활용토록 규정
- 2)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의무화, 계약서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의 누락·오기 여부 등 검토 강화 등

2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

- (사고사례)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, 대출한도가 상향된 사례
- (개선방안)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 제고 및 검증절차¹⁾ 강화

1)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 강화, 본점 심사 확대(심사 기준금액 조정) 및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화 등

3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

- (사고사례) RTI^{*}(Rent-to-Interest, 임대업 이자상환비율) 규제회피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대출 취급, 대출실행시 사용목적과 달리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한 사례 등
- * 연간 임대소득 / 연간 이자비용 → 부동산 임대업 용도 대출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지표
- (개선방안)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 수립¹⁾,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(공실, 낮은 임대료 등) 발견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²⁾, 자금 용도외유용 점검 기준 보완(사후점검 생략대상 여신 조정) 등

1) 임차인 등록 미확인시,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조사 실시를 의무화

2) 허위의 임대차계약 등으로 임대사업자 여신 취급시, RTI 재산정 및 사후관리 강화

※ 이외에도, 기존에 발표한 「내부통제 혁신방안(22.11월)」과 연계하여 준법감시 등 후선부서의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과제도 논의할 예정

4. 참석자 발언 요지

-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,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,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, 준법·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